

보도	2024.12.24.(화) 조간	배포	2024.12.23.(월)			
담당부서	금융안정지원국 금융안정지원1팀	책임자	국 장	황준하	(02-3145-8370)	
		담당자	팀 장	이 완	(02-3145-8385)	

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

1. 평가 결과

□ 채권은행은 '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(전년 대비 1개사 감소)

- (등급별) C등급은 100개사, D등급은 130개사(전년대비 C등급 △18개사, D등급 +17개사)
- (규모별) 대기업은 11개사, 중소기업은 219개사(전년대비 대기업 +2개사, 중소기업 △3개사)

※ (대기업)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, (중소기업)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

부실징후기업 추이 (단위 : 개사)							
구 분	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증 감
세부평가 대상	합 계	3,508	3,373	3,588	3,578	4,028	+450
	대 기 업	659	639	733	749	818	+69
	중소기업	2,849	2,734	2,855	2,829	3,210	+381
부실 징후기업	합 계	157	160	185	231	230	△1
	C등급	66	79	84	118	100	△18
	D등급	91	81	101	113	130	+17
	대 기 업	4	3	2	9	11	+2
	C등급	2	3	2	7	4	△3
	D등급	2	-	-	2	7	+5
	중소기업	153	157	183	222	219	△3
	C등급	64	76	82	111	96	△15
	D등급	89	81	101	111	123	+12

2. 부실징후기업 선정 동향

□ '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선정된 부실징후기업은 전년대비 1개사 감소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

○ 전년대비 C등급 평가 기업은 감소하였으나(△18개사) D등급을 중심으로 증가(+17개사)

-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, 원가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*의 경영악화가 심화된 점이 그 원인

*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

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



국내 한계기업 비중



* 한국은행

기업회생 관련(1월~10월 누적)



* 법원통계월보

3. 부실징후기업 업종별 현황

□ 부실징후기업은 부동산업이 30개사로 가장 많았고, 자동차(21개), 고무·플라스틱, 기계·장비(각 18개), 도매·중개(14개) 順

○ 전년 대비 부동산업(+8개), 자동차업(+4개), 전문직별 공사업(+4개)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

주요 업종별 부실징후기업 (단위 : 개사, %, %p)

업종 구분	'22년	비중	'23년(A)	비중	'24년(B)	비중	증감(B-A)	증감
부동산	15	8.1	22	9.5	30	13.0	+8	+3.5
자동차	9	4.9	17	7.4	21	9.1	+4	+1.7
고무·플라스틱	7	3.8	18	7.8	18	7.8	-	-
기계·장비	20	10.8	18	7.8	18	7.8	-	-
도매·중개	13	7.0	19	8.2	14	6.1	△5	△2.1
금속·가공	16	8.6	18	7.8	14	6.1	△4	△1.7
신료품제조	13	7.0	11	4.8	10	4.3	△1	△0.5
전문직별 공사업	6	3.2	4	1.7	8	3.5	+4	+1.8
기타	86	46.6	104	45.0	97	42.3	△7	△2.7
합계	185	100.0	231	100.0	230	100.0	△1	-

4.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영향

-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1.9조원('24.9월말)*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(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.07% 수준)

*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총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3.8조원 수준

-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총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2,069억원이며,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폭 또한 미미한 수준*

* '24.9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5.85%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0.02%p 하락

5. 향후 계획

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 및 부실 정리 유도

-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또는 회생 등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
- 필요시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

② 부실징후기업은 아니나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-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,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위기극복 지원
-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유관기관(산업부·중기부) 지원*을 폭넓게 받도록 은행권이 거래기업에 지원제도를 안내·추천하고 공동 금융지원

* (중기부) 선제적 자유통구조조정 프로그램, 재기지원 컨설팅, (산업부) 사업재편

참 고

국내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

- 국내은행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제도 등을 운영 중

가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

- 국내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'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'을 운영 중
 - 신용위험평가 B등급인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금융회사 공동으로 만기 연장,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구계획을 이행
 - 또한, 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시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제공 가능

나 프리워크아웃

- 채권은행 단독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,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며, 기업은 자구계획을 이행
 - 신속금융지원이 은행간 협약에 따른 '공동지원' 중심인 반면, 프리워크아웃은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'단독지원'하는 제도*

*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, 대출금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부실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 세부 적용요건은 은행별로 다소 상이

< 참고 : 정기 신용위험평가 개요 및 절차 >

- ◆ 정기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, 평가등급별(A/B/C/D)로 필요한 사후조치 수행

